



한국불교문인협회는 8월 29일 광복 70주년·만해 스님 탄신 136주년을 기념해 심우장에서 한국문학축전을 열었다. 만해 동상 앞에 앉아 노인백일장 행사에서 시를 쓰고 있는 어르신들.



이 자리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유승희 의원, 스님의 생전 가족이었던 한영숙 씨, 대한불교청년회 역대 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문학축전 개회식에서 축하행사로 열린 아리랑 공연. 참가자들의 열띤 박수갈채를 받았다.

# 심우장서 만해 정신 되새기며 역사의식 고취

## 광복 70년·만해 탄신 136주년 기념... 불교문인협 '문학 축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심우장은 독립 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이 조선총독부를 보지 않겠다고 반대한 산비탈에 북향으로 집을 지어 10여년 생을 살다 마감한 곳이다. 8월 29일 만해 스님 탄신 136주년을 기념해 이곳 심우장에서는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문학축전'이 펼쳐졌다.

행사는 축전개회식을 시작으로 노인백일장, 애송 민족시 낭송대회 및 축하행사 순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정호 봉화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유승희 의원, 스님의 생전 가족이었던 한영숙 씨, 대한불교청년회 역대 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홍파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만해 스님은 순병희 선생이 연로해 3.1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선생을 강력히 설득해 민족공동 대표로 독립운동을 이끌게 한 장본인이다. 총독부를 보지 않겠다고 북향으로 집을 지어 열반하실 때까지 사셨던 이곳 심우장에서 문학축전을 여니 마음이 흥분된다.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되어 조국의 독립을 격정하던 만해 스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뜻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로 이어질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만해 스님은 일본

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팔을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던 분이요, 이런 일화들은 광복 후 분단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에 큰 가르침을 준다. 아직까지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많고 일제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았다. 하루 빨리 역사의 잔재를 청산해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을 넘어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만해 스님의 뜻일 것"이라

홍파 스님, 문재인 등 500여 명 참석  
선진규 회장 '울음' 기념 헌시 낭독  
'심우장' 주제 노인백일장도 열어  
타악연주, 애송시낭송대회 등 다채

며 앞으로 만해 스님의 정신이 영원히 기억될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를 이끈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은 "울음"이라는 기념 헌시를 낭독해 주목을 끌었다. 선 회장은 헌사에서 광복 70년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풀었다. "구도의 길 떠나는/ 아들 손 잡고 우시던 어머니/ 새벽길 땀뭍기 소리와 함께 울었습니다...이 울음이 모두의 아픔을 씻을 수만 있다면 세계생생 수

없는 울음이 아님니까' (울음 중에서)  
2부 행사에서는 '심우장'을 주제로 노인백일장이 펼쳐졌으며 축하공연으로는 모듬타악연주, 바라춤, 청소년 합창공연, 애송민족시낭송대회 등이 이어졌다. 심우장을 주제로 한 노인백일장에서는 만해정신에 대한 역사 인식이 명확하고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신현동 어르신(80)의 시가 장원으로 당선 되었다.

신현동 어르신(80)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3년째 시를 배우며 매주 시 한편씩을 써서 발표해왔다. 백일장은 이번이 처음 나와 봤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체적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며 기쁨의 마음을 전했다.

민족애송시낭송대회에서는 이순자 어르신이 만해 스님의 '금강산'을 낭송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순자 어르신(71)은 "호수노인종합복지관 호수노인문화대학에서 문학공부를 해왔다. 늘 존경하는 만해 스님의 시를 낭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나 기쁘다. 내 생애 너무나 영광된 날인 거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선진규 불교문인협회장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시대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평소 열반 일인 6월 29일 추모 행사는 많이 이어져왔지만 탄신일을 맞아 여는 행사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탄신일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고 문인들과 불교 관계자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만해의 '활발발성'은 생명·자유 상징

### 고영섭 동국대 교수 특별강연

이번 축전에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사진)가 '만해 한용운의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강연에서 만해 스님은 대일 항쟁기에 자신을 지키며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라 평하며 '활발발성'을 통해 만해 정신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만해의 주제 의식과 역사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이야기야 할 생명의 본질인 활발발성이자 자유의지에서 나왔다. 황벽 회운의 <진심법요>와 임제 의현의 '임제어록'에서 본격화된 이래 활발발성은 물고기가 물을 차고 뛰어오르는 약동의 힘이자 생명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해의 활발발성은 그의 자유정신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에 따라 평화가 제시되는 것이다. 그의 독립정신을 옹호하고 담고 있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와 문학사상을 온전히 담고 있는 <님의 침묵>은 그 활발발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명의 활발발성은 '님의 부재'를 '님의 임재'로 탈바꿈시키려는 강력한 원동력이며, 만유의 생명은 자



유에 있으며 평화는 인생의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확신"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 교수는 만해 독립 사상의 핵심은 자유주의와 평화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해에게 자유는 독립이며 활발발성을 지닌 생명성의 다른 표현이다. 만해가 여러 글에서 보여주는 자유는 계율의 구애와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의 몸짓이다. 그 자유는 삼세 즉 과거의 기억에 불들리지 않고 미래의 예지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현재 자신의 인식으로 대면하는 자유와 평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각성 즉 불성에 겨냥되어 있다"고 만해사상을 정리했다.

정혜숙 기자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새시대 새 불교의 상징  
**능인선원, 개원 30주년**

인류와 배탈겨레, 서울시민의 병고액난과 재앙을 해탈케하시고 소원성취케 하시는

# 세계 최대 서울약사대불

강남의 명산 구룡산에 내려오시다

모든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재앙을 소멸시키며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무상보리12대원을 펼치시는 세계 최대 서울약사대불님

**능인선원 서울 약사대불님 점안 대법회**

**2015년 9월 13일 (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약사대불님을 기도도량 능인선원 대불광장에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능인선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340  
대표전화 : 02-577-5800  
www.nungin.net

**비고대동**  
올바른 삶의 지혜를 전하는 지광스님의 좋은 말씀  
BBS 불교방송  
매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3시, 9시 방송

www.niu.ac.kr  
www.nungin.net  
**능인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신입생 수시 모집  
능인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www.niu.ac.kr 에서 접수

입학문의 TEL 02)578-1880, 031)8046-9700  
교학처 FAX 02)578-1833

**30**  
능인선원 30주년  
개원기념